2007학년도 경찰대학 제1차시험 (언어영역)

※ 총 12쪽입니다. 빠진 쪽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저녁에 나눈 대화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었지만 모두가 유쾌하게 참여하였다.
② 한국인의 협동은 언제나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협동한다.
③ 이 작품은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힘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다.
④ 그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초대를 받으면 신중하게 따져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⑤ 말과 자동차는 달리는 지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둘의 구조가 다름을 보여 준다.

2.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범에 모두 맞는 것은?

① 사세가 겉잡을 수 없이 기울어지고 말았다.
② 빚장이들의 독촉 때문에 서둘러 집을 팔고 말았습니다.
③ 그는 셋방에 살면서도 자식들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④ 내일은 가게에 들러서 부탁하신 것을 꼭 사 가지고 갈께요.
⑤ 톱으로 몇 번 쓱삭쓱삭하니까 나뭇가지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3. <보기>의 내용에 따른 용례 중에서 발음 표기가 잘못된 것이 포함된 것은?

<보기>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 52 항

① 승낙(承諾), 수락(受諾), 허락(許諾)
② 만난(萬難), 곤란(困難), 간난신고(艱難辛苦)
③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노애락(喜怒愛樂)
④ 토론(討論), 중론(衆論), 의논(議論)
⑤ 십일(十日), 시월(十月), 시왕(十王)

4. 다음 글의 '기본자'에 해당되는 것은?

한글을 만들 당시, 세종 대왕은 소리 언어와 문자 언어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한자음을 정리함과 아울러 표기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소리와 문자가 규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했다. 초성(자음)은 발음 기관을 모방하고, 중성(모음)은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를 본떠 만들었는데, 먼저 기본자를 만들고 이것을 응용하여 나머지 문자를 만들었다. 초성은 각 발음 위치별로 가장 약한 소리를 기본자로 하고, 나머지는 센 정도에 따라 획을 더했으며,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같이 쓰게 한 것 등만을 보아도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① ㄷ ② ㄹ ③ ㅂ ④ ㅅ ⑤ ㅎ

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종교와 문학은 서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문화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종교는 종교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들어감으로 다음과 같은 ㉡패단이 생기게 되었다. ㉢종교는 민중을 구제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 한편 문학 역시 사상적 뒷받침이었던 종교를 외면함으로 상업성과 독단이라는 ㉣수렁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먼 옛날부터 그래왔듯이 미래에도 종교와 문학은 인간 문화의 큰 축을 이룰 것이다. 종교는 문학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본성을 잃지 말아야 하고, 문학은 밑바탕에 종교 사상을 깔고 본래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과 종교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진정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① ㉠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이로 인해'로 고쳐 써야겠다.
② ㉡은 표기가 잘못되었으므로 '폐단'으로 고쳐 써야지.
③ ㉢은 논지 전개상 어색하므로 삭제하고, 논지에 맞는 글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④ ㉣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도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네.
⑤ ㉤은 어색하므로 '유지해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6. <동양 연극과 서양 연극의 차이점>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관객과 무대와의 관계'라는 항목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서양의 관객이 공연을 예술 감상의 한 형태로 본다면, 동양의 관객은 공동체적 참여를 통하여 함께 즐기고 체험한다.
㉡ 동양 연극은 춤과 노래와 양식화된 동작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현실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재창조한다.
㉢ 서양 연극의 관객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격식을 갖추고 관극(觀劇)을 하는 데 비하여, 동양 연극의 관객은 매우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관극한다.
㉣ 서양 연극은 지적인 이론이나 세련된 대사로 이해되는 텍스트 중심의 연극이라면, 동양 연극은 노래와 춤과 언어가 삼위일체가 되는 형식을 지닌다.
㉤ 서양 연극과는 달리, 동양 연극은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관객이 신명나게 참여하고, 공연이 끝난 후의 뒤풀이에도 관객, 연기자 모두 하나가 되어 춤판을 벌이는 것이 특징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존명사의 예시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의존명사: 자립적이지 못하고 수식어 뒤에서 쓰이는 명사. 반드시 앞에 관형어가 와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다.

① 나의 <u>앞</u>에는 어머니께서 앉아 계셨다.
②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u>대로</u> 했을 뿐이다.
③ 나는 딸에게 강아지 세 <u>마리</u>를 사 주었다.
④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u>길</u> 사람 속은 모른다.
⑤ 이 <u>분</u>이 바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신 경찰관이시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말 후기인상파의 등장과 함께 미술계에는 자아를 표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기법들이 사용되었다. 세잔느는 모든 사물을 원추와 원통과 구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회화 이념에 근거하여 ⓐ<u>주관적인</u> 입장에서 사물을 해석하려고 하였으며, 고호나 고갱 역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그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20세기 초에 오면 극도의 ⓑ<u>분석적인</u> 방법으로 사물을 정확히 표현하려고 한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 계승된다. 피카소나 브라크는 보이는 한 면으로는 사물의 참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해 들어간</u> 결과는 실제의 사물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초상화가 예리하게 쪼개어진 많은 단편들의 집합으로 바뀌고 보니,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u>복잡한</u> 기계의 해부도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많은 선과 면을 집적하여 화면을 자의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새로움이라는 미학상의 만족을 얻었지만, 애초에 그들이 추구했던 사물의 모습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미술이 난해해지자 미술가와 민중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민중은 예술이 지나치게 독선적인 자기 칩거에 빠져 ㉡<u>민중과의 대화</u>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했고, 예술가들은 작품이 예전보다 더 ⓓ<u>상징적인</u> 것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민중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다.

예술과 민중이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먼저 예술은 비인간화에서 탈피하여 인간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입체파가 분석적 기법에서 종합적 기법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사물의 모습은 화면에서 상당히 회복될 수가 있었다.

한편, 민중도 예술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u>민중적인</u> 예술을 역설한 영국의 러스킨은 예술이 민중을 위한 민중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예술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을 예술에 부과한 것이다. 예술을 사회 계도나 사회 변혁의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는 예술가와 민중을 모두 전형화의 노예로 만드는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의 극단적인 사례는 나치에 의한 모더니즘 탄압에서 볼 수 있다. 1935년 히틀러는 모든 예술관과 화랑, 예술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국가주의 리얼리즘에 위배되는 ㉢'<u>타락한</u>' 작품을 징발하여 한 자리에 모으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저 유명한 뮌헨의 '퇴폐예술전'이다.

이와 같이 예술이 도덕이나 사회·국가적 이념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술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대중을 불행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허버트 리드가 <예술과 민중>이라는 글에서 인용한 부르크할트의 '사실에 얽매인 예술, 더욱이 사상에 속박된 예술은 소멸할 것'이란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예술의 보편적 특질은 미(美)이며, 이는 순수히 형식적인 특질이다. 이 형식적 특질 때문에 예술은 자신이 봉사하기 위해 생겨난 사회 제도와 종교적인 동기가 소멸된 후에도 살아남는다.

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현대 예술가들의 성격은 독선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② 회화의 주된 기능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③ 예술가들은 나치 치하에서 민중으로부터 크게 외면당했다.
④ 모든 나라의 예술은 그 나라 국민이 지닌 도덕성을 대변한다.
⑤ 새로운 표현 기법의 출현이 현대 예술을 더욱 난해하게 만들었다.

9. 밑줄 친 ㉠이 궁극적으로 목적한 것은?

① 다양함 ② 세련됨 ③ 어려움 ④ 새로움 ⑤ 진실함

10. 글의 문맥으로 볼 때, 밑줄 친 ㉡의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편지 ② 면담 ③ 작품 ④ 화보 ⑤ 설문 조사

11. 밑줄 친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먼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2-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의 우주론에서는 우주를 지구의 공간과 천체의 공간으로 나누었다. 근대적 우주론에서와 달리, 이 두 공간은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중세의 우주는 비동질적인 것이었다. 중세에는 이 지구를 죽음과 변화의 세계, 천체를 영원과 불변의 세계라고 믿었다. 따라서 ㉡중세에는 육체와 영혼으로 대비되는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지구 공간과 천체 공간으로 대비되는 우주론적 이원론이 조화를 이루었다.

(가) 지구 공간과 천체 공간을 중세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최초로 학문적 반기를 든 사람은 15세기의 철학자이며 추기경이었던 니콜라스 쿠사(Nicholas Cusa)였다. 그는 <학문적 무지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오직 신만이 절대적이므로 물질 세계에는 다른 어떤 절대자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우주는 바깥 경계선이나 중심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바깥 경계선이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절대적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그가 생각한 우주는 높고 낮음이 없는 일체화된 세계였다.

(나) 16세기에 와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고대의 과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작은 톱니바퀴들이 주요 톱니바퀴들을 보조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장치와 같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고 믿어 온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보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태양 중심의 우주를 생각해 내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로 하여금 지구가 태양 중심의 우주 가운데 하나의 행성이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였다.

(다) 지동설에 따른 공간 체계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깨닫고 지구 공간과 천체 공간의 중세적 구분을 진정으로 무너뜨린 인물은 독일의 수학자 케플러였다.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여 태양 중심의 우주 체계가 물리적으로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즉, 천체의 세계를 지구와 같이 자연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구체적인 물체로서 취급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원이 아닌 타원의 형태로 돌며, 그것을 돌게 하는 것은 우주에 내재해 있는 물리적인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라) 그러나 케플러가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동안 그 개념을 서구인들에게 정면으로 내놓은 인물은 갈릴레오였다. 케플러가 상상력으로 달을 여행하는 동안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달을 들여다보는 데 열중하였다. 그는 망원경을 통해 달의 표면이 부드럽고 평평하며 완전히 둥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 표면처럼 여기저기에 산과 깊은 계곡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점들이 태양 표면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에 대한 관찰을 통해 천체에서도 지구에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천체가 구체적인 물질 세계라는 믿음은 더욱 강화되었다.

(마) 17세기 중엽에 유럽의 과학계는 우주가 태양 중심의 물질 세계라는 사실을 얼마간 인정하게 되었으나 지구 공간과 천체 공간의 통합이 완성된 것은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였다. 이 법칙의 본질은 두 물체 사이에 끄는 힘, 즉 인력이다. 중력이 있는 곳에는 물질, 즉 자연 그대로의 견고한 물체가 있어야 하는데, 태양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므로 이들 천체는 지구처럼 구체적인 물리적 물체일 수밖에 없다. 이로써 천체 공간과 지구 공간은 동일한 물질 세계임이 확실해진 셈이다.

12. 우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3. 우주론 변천에 대한 위 글의 설명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학문과 학자의 삶을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각 학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주요한 업적들을 시기별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학문의 정치, 사회적 의의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학문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4. 밑줄 친 ㉠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니콜라스 쿠사 - 바깥 경계선이 없고 중심이 없음
② 코페르니쿠스 - 천체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임
③ 케플러 - 물리적인 힘에 의해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돎
④ 갈릴레오 - 천체에서도 지구와 같은 변화가 일어남
⑤ 뉴턴 - 태양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 작용함

15. 밑줄 친 ㉡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① 천체 공간은 영혼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② 지상의 권력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믿었다.
③ 현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④ 신에 대한 외경심으로 신을 모독하는 언행을 삼가게 된다.
⑤ 영혼과 육체가 합일된 상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16. 위 글에 나타난 '코페르니쿠스'에 대하여, 다음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말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이 여전히 천체를 움직이는 근원이라고 본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에서는 천체의 세계가 성스러운 천상의 '다른' 세계로 계속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쿤은 그의 이러한 점에 대하여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코페르니쿠스 자신에게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① 코페르니쿠스는 학문보다 신앙을 더 중시했다.
② 코페르니쿠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③ 코페르니쿠스는 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④ 코페르니쿠스는 중세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지식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

[17-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瀑布)

(나)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다) 이몸이 죽고 주거 一百番(일백번) 고쳐 주거
白骨(백골)이 塵土(진토)ㅣ 되어 넉시라도 잇고 업고
님 向(향)ᄒᆞᆫ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 정몽주(鄭夢周)

(라)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턴고
구블 節(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　Ⓐ　)은 너 뿐인가 ᄒᆞ노라

- 원천석(元天錫)

17. 다음에 제시된 (가)~(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가)~(라)에서는 화자의 불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② (가)~(라)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③ (가)~(라)의 화자는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와 (라)는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정서가, (다)와 (라)에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정서가 드러난다.

18. 다음 중 (가)의 밑줄 친 ㉠과 같은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①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고은, 눈길)
②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김소월, 산유화)
③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신석정, 꽃덤불)
④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유치환, 깃발)
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별 헤는 밤)

19. 다음은 (나)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지훈'이 사용한 감상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가) 또는 (다)를 감상한 사람은?

> 지훈: 이 작품은 단호한 어조의 사용과 적절한 부사어의 구사를 통해 화자의 강한 의지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① 진영: (가)를 읽어 보니 30년대 모더니즘 작품이 지닌 역사와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현실 의식을 강조한 작품을 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겠어.
② 혜진: (가)에는 진실을 지향하고 실현하려는 모습이 폭포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역사란 항상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낙관적인 역사 의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③ 진구: (가)의 1, 2, 3, 5연 말미에 반복되는 '떨어진다'와 4연의 1, 2행에 사용된 변조에 의한 반복은 시의 주제를 강렬하게 전달하면서 각운과 같은 음악적 효과를 주기도 하는군.
④ 지원: (다)를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어 보니, 작품의 내용이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오는군.
⑤ 기상: (다)를 읽고 나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의리와 지조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어.

20. 다음 중 (다)와 주제면에서 가장 유사한 작품은?

① 風霜(풍상)이 섯거틴 날의 갓 픠온 황국화(黃菊花)를
金盆(금분)의 가득 다마 玉堂(옥당)으로 보내실사
桃李(도리)야 곳이온양 마라 님의 쓰들 알괘라
②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ㅣ로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ᄌᆞ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③ 金生麗水(금생여수)ㅣ라 ᄒᆞᆫ들 물마다 금이 나며
玉出崑崗(옥출곤강)이라 ᄒᆞᆫ들 뫼마다 옥이 나랴
아모리 女必從夫(여필종부)인들 님마다 조ᄎᆞ랴
④ 이시렴 브디 갈짜 아니 가든 못ᄒᆞᆯ쏜냐
無端(무단)이 슬튼야 놈의 말을 드럿는야
그려도 하 애도래라 가는 ᄯᅳᆺ을 닐러라
⑤ 空山(공산)에 우는 뎝똥 너는 어이 우지는다
너도 날과 갓치 무음 離別(이별) ᄒᆞ엿는야
아무리 피ᄂᆞ게 운들 對答(대답)이나 ᄒᆞ더냐

21. 다음 중 밑줄 친 ㉡과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22. 다음 중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爲國忠節(위국충절) ② 落落長松(낙락장송)
③ 傲霜孤節(오상고절) ④ 歲寒孤節(세한고절)
⑤ 獨也靑靑(독야청청)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인간 본능의 산물이다. 문화적 발명품들은 사회마다 그 정교함이 다르겠지만 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발명품들은 그 정교함의 수준이 대체로 비슷하다. 원시 사회에서는 뼈에 금을 그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통나무에 마른 나무 조각을 비벼서 만든 불로 요리를 하지만 문명 사회에서는 컴퓨터로 계산하고 마이크로웨이브로 요리를 한다. 그러나 언어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석기 시대 사회가 존재하지만 석기 시대 언어라는 것은 없다. 에드워드 사피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어의 형식에 관해서라면 플라톤이 마케도니아의 돼지치기와 나란히 걷고 공자가 사람을 사냥하는 *아삼 주의 야만인들과 나란히 걷는다." 인디언 부족의 하나인 체로키 족의 대명사 체계와 현대 영어의 그것을 비교해 보자. ㉠체로키 어에서는 '당신과 나', '제삼자와 나', '다른 사람들과 나', '당신 그리고 한 사람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나' 등이 구별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것들을 '우리(we)'로 대략 뭉뚱그려 버린다.

언어 능력이 본능적이라는 점은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도 알 수가 있다. 어떤 아이든 모국어를 배울 때에는 언어적 천재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머니에 의해서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는 과도한 믿음을 ㉡암묵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것은 아기가 좀 더 일찍 자기의 손가락을 의식할 수 있도록 장갑을 사주는 어머니들의 노력과 같은 맥락이다. 육아에 대한 민간 이론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떠한지를 조사해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쿵산 부족은 아기들에게 앉고 서고 걷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아기들이 자세를 똑바로 지탱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모래를 조심스럽게 쌓는다. 사실 아기들은 앉고, 서고, 걷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시기가 되면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두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언어 능력이 본능적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언어 기관이나 문법 유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지력은 그대로이면서 언어 능력이 손상되거나, 그와는 반대의 경우인 신경적·유전적 손상에 대한 보고는 있었다. ㉣뇌졸중에 걸렸다가 회복된 포드는 문법적 능력이 손상되었지만 좌우에 관한 지식이나 훈련 안 된 왼 손으로 그림 그리기, 계산하기, 지도 읽기, 시계 맞추기 등과 같이 비언어적 능력과 관련된 지능들은 모두 보존되어 있었다.

*아삼 주--인도의 한 주.

23.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자의 언어 체계가 아삼인들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② 계산하는 방법은 사회에 따라서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
③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천재일 가능성이 높다.
④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문법 범주가 더 자세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⑤ 육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 문화적 관찰이 필요하다.

24. 다음 중 ㉠과 같은 언어적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한국어로 쓴 현대시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 대응되는 단어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② 프랑스 어는 목적어 앞에 동사가 오지만 우리말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프랑스 어로 생각하고 문장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③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인들이 한국에 오면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언어들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④ 원시 사회의 언어일수록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들이 구체적이지만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추상적 사고가 발달해 있으므로 그 사회의 언어 체계도 원시 사회의 그것보다는 훨씬 발달하였다.
⑤ 보편 문법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정보 처리에 대한 보편적인 제약만을 반영하고 있다. 누구나 물과 다리를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는 '물'과 '다리'를 뜻하는 단어가 있다. 100만 개의 음절을 가진 단어는 없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도 발음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25. 다음 중 ㉡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어둡고 캄캄함
② 넌지시 알려줌
③ 남이 모르는 사이
④ 자기 의사를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
⑤ 차츰 주위가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 현상

26. 다음 중 ㉢이 뜻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언어 습득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다.
②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할 수가 없다.
③ 교육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언어 습득이 빨라진다.
④ 쿵산 부족의 아이들은 신체적 능력이 다른 부족 아이보다 우수하다.
⑤ 사막 지역에 사는 부족들에게는 걷는 능력이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7. 다음 중 ㉣의 사례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① 뇌졸중에 걸리더라도 언어 능력은 손상되지 않는다.
② 왼손으로 그림 그리기 능력은 뇌졸중에 걸리면 발달하게 된다.
③ 인간에게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특수한 뇌 조직이 존재한다.
④ 인간의 뇌에 있는 문법 유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
⑤ 인지력과 언어 능력은 상관성이 높아서 인지력이 감소하면 언어 능력도 감소한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擺脫(파탈)하려 하면, 將來(장래)의 脅威(협위)를 ㉠芟除(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과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 소잔)을 興奮伸張(흥분 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손손)의 永久完全(영구 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 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 통성)과 時代良心(시대 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하야 取(취)하매 何强(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하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丙子修護條規(병자수호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얏다 하야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 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 기초)와 卓犖(탁락)한 民族心理(민족 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辨(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羈縻(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 상태)를 改善匡正(개선 광정)하야, 自然(자연) 又(우) 合理(합리)한 正經大原(정경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國併合(양국 병합)의 結果(결과)가, 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危壓(위압)과 ⓓ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 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 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 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업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 今來實積(금래 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 眞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28. 위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일본은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 같이 대우하였다.
② 자손들의 영구하고 완전한 행복을 위하여 독립을 해야 한다.
③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동정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④ 두 나라의 합방은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
⑤ 구사상과 구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우리가 희생되었다.

29. 다음 중 ㉠과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면?

① 위편삼절(韋編三絶)　② 발본색원(拔本塞源)
③ 거두절미(去頭截尾)　④ 일망타진(一網打盡)
⑤ 아전인수(我田引水)

30. 다음 중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인도(人道)'는 '시대(時代)의 양심(良心)'을 함의하고 있다.
② ㉡의 '의'는 '타(他)의 원우(怨尤)'의 그것과 의미 기능이 같다.
③ ㉡에 있는 '간과(干戈)'의 문맥적 의미는 '모순(矛盾)'과 다르다.
④ ㉡은 '정의(正義)의 군(軍)'과 짝을 이루어 표현 효과를 더하고 있다.
⑤ ㉡은 일본을 꺾고 독립의 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31. 다음 중 ㉢을 다른 표현으로 바꿀 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① 직시하기에　② 격려하기에　③ 수습하기에
④ 책망하기에　⑤ 화합하기에

32. 다음 중 유의어(類義語) 관계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를 어떤 방식으로 대우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 많다. 그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얼굴색이 흰지 검은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혹은 그의 스타일이 조금은 상류층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흔해서 별 특징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외모를 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그들과 나의 차이를 재빨리 감지한다. 일단 ⓑ감지가 되면 우리는 둘 사이의 지위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를 대하게 된다. 한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집단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는 지위가 높거나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우리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 사이의 이러한 위계화(位階化)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까? 위계화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자원과 권력을 소유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체계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되고 조직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나) 인간이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방식은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계층과 계급의 차이를 통해서 정당화되는데, 이는 재산,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학력, 집안 배경 등등의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사람들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 낸다. 또한 모든 사회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얻게 되는 인종, 성, 종족 등의 생득적 특성과 나이를 통해 불평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열등성과 우등성을 가늠하게 만드는 사회적 개념이 되곤 한다.

(다) 한편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제들이 때로는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특정 사회의 본질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다. 불평등은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개인에 의해 경험됨으로써 문화의 주요 ⓔ부분이 되었고, 그 결과 같은 문화권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권력 차이와 그에 따른 폭력이나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수용될 때가 많다.

(라) 문화 인류학자들은 사회 집단의 차이와 불평등, 사회의 관습 또는 전통이라고 애기되는 문화 현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 문화 인류학자가 이러한 문화 현상은 고유한 역사적 산물이므로 나름대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거나 단순히 관찰자로서의 입장에 안주한다면, 이러한 차별의 형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실제로 문화 인류학 연구는 ㉠기존의 권력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다양한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인간 간의 차이가 우등성과 열등성을 구분하는 ㉡지표가 아니라 동등한 다름일 뿐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데 기여해 왔다.

33. 위 글의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차이와 불평등
② 차이의 감지 능력
③ 문화 인류학의 역사
④ 위계화의 개념과 구조
⑤ 관습과 전통의 계승과 창조

34. 다음 중 밑줄 친 ㉠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② 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
③ 인종, 성, 종족 등 생물학적 차이를 지칭하는 개념
④ 계층과 계급의 차이를 통해 위계를 만들어 내는 방식
⑤ 폭력과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방식

35. 다음 중 밑줄 친 ㉡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6. 다음 글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 잘 알려진 나치 치하의 유태인 대학살은 아리안 종족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했다. 또한 한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느냐에 따라, '얼굴이 희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매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취급될 수 있으나, 동시에 인종적 우월성을 정당화시키는 문화적 관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나의 조상이 유럽인이다'라는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인종 사회에서는 주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인종적 차이가 보상과 처벌이 분배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① (가)가 시작되는 부분 ② (가)와 (나) 사이
③ (나)와 (다) 사이 ④ (다)와 (라) 사이
⑤ (라)가 끝나는 부분

37.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① 자원과 권력만 공평하게 소유하게 된다면 인간은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② 문화 인류학자의 임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문화 현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③ 관습이나 전통은 때로 구성원끼리의 권력 차이나 폭력을 수용하는 사회적 기제로 이용되기도 한다.
④ 두 사람이 싸우다가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⑤ 인간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념을 일깨우고자 하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독일 유학 시절 독일인에게 "독일 문학이 좋아서 배우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독일의 문학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나면, 한국 문학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까닭은 내가 한국 문학보다 독일 문학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그 독일인이 오해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 당시 독일 문학을 한국 문학보다 더 좋아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아무튼, 무의식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국 문학에 대한 경시와 외국 문학에 대한 *추수(追隨)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용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 나를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미리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보호의 태도는 분명 자존심(自尊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지는 긍지가 자긍심(自矜心)이다. 무조건적 보호 본능은 나와 남을 구분하여 대립시키지만, 자긍심은 나와 남을 평등하게 존중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려면, 다시 말해 '우리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긍심은 비록 자신과 자기 것에 관한 주관적 태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가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존심은 자신의 것에 대한 객관적 가치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자기 품위를 스스로 높이 가지는 마음이다.

(다) 내가 유학 시절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우리가 자긍심은 없으면서도 자존심은 대단한 민족이라는 사실이었다.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겉모습이 남루하지만 문화적 자긍심이 대단하였고, 일본 유학생은 외면적 부유함에서 흘러나오는 경제적 자긍심이 남달랐다. 나는 그 틈바구니에 대충 끼여 있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열등감이 일본인을 대할 때에는 우월감으로 변하였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중국인에 대한 우월감으로 바뀌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의 시각에서 자신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자긍심이 아닌 자존심만을 부풀려 놓을 뿐이다.

(라) 그 당시 내가 만약 우리 문학과 철학에 대한 확고한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나는 아마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독일 문학이 좋아서요." "포스트모더니즘에 함축된 철학적 문제가 저를 매료시키거든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바로 ㉠문화적 자긍심의 결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문화의 무엇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이 제기되었을 때, 그 동안 서양 철학과 서양 문화를 매도해대던 사람들은 왜 ㉡아무 대답도 없는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철학을 하는 까닭이 한편으로는 특수 속에 감추어진 보편의 윤곽을,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물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추수(追隨): 남을 붙좇아 따름.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단정적인 어조로 일반인의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② (나)는 '자존심'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④ (라)는 가정적인 상황을 끌어들이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라)는 진리나 법칙보다 가치나 태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39. 다음 중 밑줄 친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전 문학을 공부할수록 조상들의 사상과 철학에 매료되기 시작하였다.
② 외국어로 번역하고 소개할 정도로 수준 높은 한국 문학 작품이 많다.
③ 우리 장단의 아름다움은 사물놀이 지도를 몇 년 정도 받으면 잘 느낄 수 있다.
④ 모음조화와 주어 생략 등 한국어의 특징을 조금 고치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⑤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당시 서민들의 생활과 정서 속으로 들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40. 다음 중 밑줄 친 ㉡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① 묵묵부답(默默不答)
② 설왕설래(說往說來)
③ 언중유골(言中有骨)
④ 마이동풍(馬耳東風)
⑤ 동문서답(東問西答)

41. 위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국 문학에 대한 추수 현상은 보편적 심리 현상이다.
② 동물도 무조건적 보호 본능이 있으므로 자존심이 있다.
③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의존하는 연구 방법론은 사대주의적 접근법이다.
④ 유학 시절에 본 모습으로 우리 민족이 자긍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⑤ 자신의 위상은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의 시각으로 보아야 정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차가 정거를 할 때마다 엄마는 내 손을 끌어다가 서울까지 몇 정거장 남았나를 꼽게 했다. 개성역에서 경성역까지는 정거장이 열 개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꼽기에 편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엄마가 ⓐ서울이라는 거대한 대궐의 안주인처럼 우러러 뵈었다. 엄마는 또 내 귓가에 소곤소곤 내가 서울 가서 앞으로 되어야 하는 신여성에 대해 얘기해 주기도 했다.

"신여성이 뭔데?"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찌는 대신 히사시까미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족구두 신고 한도바꾸 들고 다닌단다."

내가 히사시까미, 한도바꾸에 전혀 무지하다는 걸 아는 엄마는 기찻간을 한번 골고루 휘둘러보고 나서 저기 저 여자의 머리가 히사시까미, 조기 조 여자가 무릎 위에 놓고

있는 게 한도바꾸 하는 식으로 실물을 조기 견학까지 시켜 가며 열성스럽게 신여성이 뭔가를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기찻간에 한 몸에 그 여러 가지 신여성의 구색을 갖춘 여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춘 신여성이라는 걸 상상하긴 어렵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실망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긴 머리꼬리에 금박을 한 다홍 댕기를 드리고 싶었고 같은 빛깔의 꼬리치마를 버선코가 보일락말락하게 길게 입고 그 위에 자주고름이 달린 노랑저고리를 받쳐입고 꽃신을 신고 싶었다. 나는 한창 고운 물색에 현혹돼 있었기 때문에 신여성의 구색인 ⓑ검정치마, 검정구두, 검정한도바꾸가 ㉠도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신여성은 뭐 하는 건데?"

나는 내가 ⓒ고운 물색에 차려입고 꼭 하고 싶은 게 널이나 그네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엄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은 몹시 난처해 보였다. 어른들은 가끔 그런 얼굴을 잘했다.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할 때라던가, 슬픈데도 안 슬픈 척할 때 어른들은 그런 얼굴을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려 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생글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란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나는 신여성의 겉모양을 그려보았을 때보다도 더 크게 실망했다. 신여성이 그렇게 시시한 걸 하는 건 줄 처음 알았다.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고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기차는 칙칙폭폭 무서운 속도로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 <중략> ……

(나) 나는 옛날의 등성이를 넘기를 단념하고 새로 쌓아 내려가고 있는 성벽을 따라 사직터널 방향으로 내려왔다.

샌들 속으로 모래가 들어온 걸 벗어서 털면서 나는 문득 실소(失笑)를 터뜨렸다. 어머니가 낯설고 바늘 끝도 안 들어가게 척박한 땅에다가 아등바등 말뚝을 박으시면서 나에게 제발 되어지이다 라고 그렇게도 간절히 바란 신여성보다 지금 나는 너무 멋쟁이가 돼 있지 않은가. 그러나 신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머니가 생각한 것으로부터는 얼마나 얼토당토않게 못 미쳐 있는가. 엄마의 생각은 그 당시에도 당돌했지만 현재에도 역시 당돌했다. 엄마의 억지는 그뿐이 아니었다.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근거를 심어 줌으로써 도시에서 만난 웬만한 걸 덮어놓고 무시하도록 부추기다가도 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선 서울내기 흉내를 내도록 조종했다.

어머니가 세운 신여성이란 것의 기준이 되었던 너무 뒤떨어진 외양과 터무니없이 높은 이상과의 갈등, 점잖은 근거와 속된 허영과의 모순, 영원한 문 밖 의식, 그건 아직도 나의 의식 내용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의 의식은 아직도 말뚝을 가지고 있었다. ㉡제 아무리 멀리 벗어난 것 같아도 말뚝이 풀어준 새끼줄 길이일 것이다.

-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I'에서 -

42. 다음 중 (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먼 거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② 작품에 등장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절대자의 위치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⑤ 작품에 등장하지 않고 객관적 위치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나 사건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있다.

43. 다음 중 밑줄 친 ㉠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은?

① 조금 ② 대부분 ③ 어쩐지 ④ 많이 ⑤ 도무지

44. 위 글의 '어머니'가 <보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찾으면?

<보기>

개항에 즈음하여 어느새 모든 언어의 앞머리에 '신(新)'이라는 말이 붙었다. 신사고, 신문물, 신학문, 신여성, 신생활, 신문화 등의 '새롭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까지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그 무엇, 그래서 '이곳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지향해야 할' 무엇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신(新)'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계몽적(啓蒙的)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5. 위 글을 읽고, 어머니에 대해 평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머니는 신여성관의 역할을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다.
②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하면 신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어머니가 선호하는 신여성상을 볼 때, 어머니는 검소함을 추구한다.
④ 신여성을 표방한 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자세히 보면 모순이 있다.
⑤ 어머니의 신여성관에 대한 '나'의 평가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46. 다음 중 밑줄 친 ㉡의 의미와 잘 어울리는 표현은?

① 우물 안 개구리　② 부처님 손바닥
③ 어미 잃은 송아지　④ 썩은 새끼로 범 잡기
⑤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소련을 침공했다. 소련은 독일뿐 아니라 일본까지도 동시에 막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그 때 동경으로부터 날아온 비밀 정보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일본은 소련을 공격할 계획이 없음." 마샬 추코프 사령관은 이 보고에 따라 시베리아 주둔 몇 개 사단과 탱크, 비행기를 모스크바 전선으로 이동시켜 독일군을 저지했다.

소련은 어떤 방법으로 일본에게 들키지 않고 비밀 정보를 송신할 수 있었을까? 스파이 클라우젠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른쪽의 암호 표에서처럼 맨 위에 **subway**를 쓴 다음, 그 밑에 나머지 알파벳을 순서대로 적고, 마지막에는 마침표와 빗금을 첨가했다. 그리고 빈도가 높은 8개 철자 'a, s, i, n, t, o, e, r'에는 0부터 7까지 숫자를 매기는데, 왼쪽 칸의 's'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숫자를 적었다. 나머지 철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80에서 99까지의 수를 기입했다. 이것으로 정보 문서는 숫자로 변환되었다. 가령, 클라우젠이 '**no attack**(공격 없음)'이라는 정보를 암호화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위의 방법에 따라 '**no attack**'은 **729456658088**로 바뀐다.

s	u	b	w	a	y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	v
x	z	.	/		

s	u	b	w	a	y
0				5	
c	d	e	f	g	h
		3			
i	j	k	l	m	n
1					7
o	p	q	r	t	v
2			4	6	
x	z	.	/		

s	u	b	w	a	y
0	82	87	91	5	97
c	d	e	f	g	h
80	83	3	92	95	98
i	j	k	l	m	n
1	84	88	93	96	7
o	p	q	r	t	v
2	85	89	4	6	99
x	z	.	/		
81	86	90	94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만 암호화를 하면 일본 정보부가 쉽게 알아챌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와 미리 약속한 방식대로 이 숫자들에다 <독일 제국 연감>(1935년)에서 선택한 다른 숫자들을 결합하였다. 가령, 연감의 34째 면, 23째 줄, 6째 단에서 '4230, 5166, 7821, 9421'을 선택한 다음, 이것을 세 번째 숫자부터 사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 '**305166782194……**'가 해독의 열쇠이다. 그는 이것을 앞에서 만든 암호문 **729456658088** 아래에 배열했다.

729456658088
305166782194

그 다음에는 두 줄의 수를 위아래로 더하되, 9를 넘더라도 10을 윗자리로 넘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 즉, '7+3'은 10이 아니라 0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중간 암호문'이다. ㉡여기에 다시 연감의 해당 위치를 나타낸 수 **34236**을 덧붙여야만 했다. 이것은 34면 23째줄 6째 단을 뜻한다. 덧붙이는 방법은, 먼저 이 수를 중간 암호문의 앞자리 5개와 더한 다음에(이때에도 10을 윗자리로 넘기지 않고 더했음), 그 결과를 중간 암호문의 앞에 배열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완성된 암호문을 다섯 자리씩 간격을 두어 나열하면, '**no attack**'은 다음과 같은 암호로 바뀐다. (㉢) **02451 23301 72.**

일본 정보부에서는 클라우젠이 만든 암호문들을 전쟁이 끝나도록 풀지 못했다. 사용된 암호화 과정이 워낙 정교한데다 평범한 책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클라우젠의 가택 수색에서도 별다른 주위를 끌지 못했던 연감이 실마리였다는 사실을 일본은 눈치 채지 못했다.

47. 다음 중 모스크바와 클라우젠 사이에 암호 해독을 위하여 사전에 약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연감에서 선택한 숫자의 위치
② 1935년 <독일 제국 연감>을 활용
③ 빈도가 높은 알파벳으로 선택된 것들
④ 암호문과 해독의 열쇠를 더하는 방법
⑤ 빈도가 높지 않은 알파벳에 숫자를 매기는 순서

48. 다음 중 ㉠과 가장 유사한 암호 작성 방법은?

① 토마스 제퍼슨은 '제퍼슨 바퀴'라는 암호 제조기를 발명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철자를 다른 철자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a, b, c가 F, X, Y로 바뀔 수도 있다.
② 교황의 대사들은 나름대로의 암호를 고안해 냈다. 헤이그의 대사는 MUSEUM을 '바티칸' 대신에 사용했고 비엔나의 대사는 숫자를 이용했다. **7690**은 '나폴레옹'을 가리켰다.
③ 세익스피어의 작품들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썼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작품 어디엔 가는 'Bacon'이라는 글자가 존재할 것이다. 파비언은 <사랑의 헛소동> 4막 3장에서, 각 줄의 첫 한두 글자를 따보면, 'B CO AN'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④ 1943년, 일본의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한 사무실로 편지가 왔다. 일본의 검열에도 걸리지 않았지만 FBI에서는 이 편지에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편지의 각 줄마다 맨 앞에 있는 두 단어만 뽑았더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었다. "After Surrender fifty percent Americans lost in Philippines in Nippon 30%."

⑤ ISBN 코드는 네 부분이다. '89-89422-42-6'에서 89는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89422는 출판사의 고유번호이며 42는 출판사에서 붙인 책의 고유번호이다. 네 번째는 0부터 9까지이며, 10을 쓸 때에는 로마숫자 X를 사용한다. 이 번호는 검사를 위한 수이다. 원래 번호를 쓰고 그 아래에 1부터 10까지를 거꾸로 쓴 다음, 위아래 숫자를 곱해서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11로 나누어지는 숫자가 되어야 한다.

49. 다음 중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연감의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② 제3자의 암호 해독 과정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③ 송신자의 암호문 전문을 다른 코드로 전환하기 위하여
④ 송신자가 정보를 보낼 때 전달 내용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⑤ 수신자가 같은 책에서 정확한 열쇠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0. 다음 중 ㉢에 들어갈 숫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02451 ② 30516 ③ 34236 ④ 36687 ⑤ 72945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